

☆ ☆ ☆ ☆ ☆
최문섭동시선집

☆ 새싹은

햇병아리

노오란 주둥아로
지구깍질 툭툭 터치고
빠끔이 열린 푸른 하늘 향해
두익 쭉욱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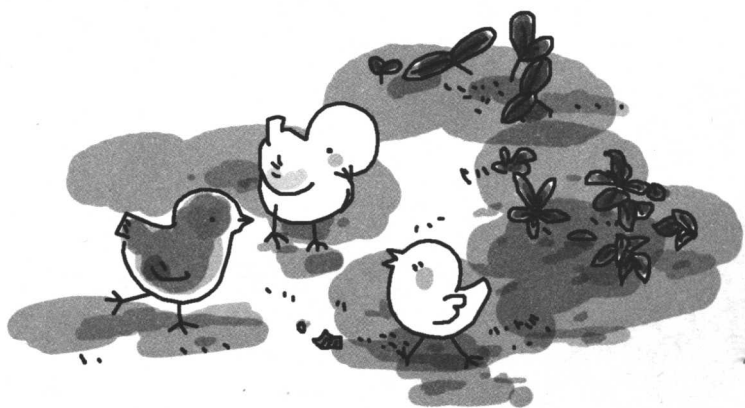
파릇파릇 새싹은
고운 털 다듬는 햇병아리



연변인민출판사

최문섭동시선집

새싹은 햇병아리



책임편집: 리태학

책임교정: 최순란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嫩芽是小鸡/崔文燮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4 ISBN 7-80698-678-2

I. 嫩... II. 崔... III. 儿童文学-诗歌-作品集
-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31093号

嫩芽是小鸡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吉市慈善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50×1168 1/32 印张: 5.75 字数: 150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678-2 / I·95 (民文)

版次: 2006年4月第1版

2006年4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0.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최문섭작가

1942년 조선 함경북도 경원군 용북동 출생. 연변대학 통신학부 조문전업 졸업. 교육, 선전, 출판 사업에 종사.

동시집 《구름기차》, 《꽃동네》, 《꿈을 깬 애기잎》, 《물수제비》, 시집 《타버리는 인생》, 이야기집 《천지의 무지개》 (조, 한문) 등 출판.

해란강문학상, 주정부문학상, 성소수민족문학상, 전국소수민족문학상, 한국 백두아동문학상, 계몽아동문학상, 방정환아동문학상 등 다수 수상

현재 전국소수민족작가학회 회원, 아시아아동문학학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이사, 아동문학창작위원회 부주임, 연변시조시사 부사장, 연변아동음악학회 상무이사, 연변인민출판사 편집.

최문섭동시선집의 출간은 그의 순진
무구한 동심세계를 들여다보는데 있어서
나 그의 참신한 동시세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나 그리고 새로운 세기 우리 조선
족동시단이 나아갈 길을 진맥해보는데 있
어서나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지리라 믿
는다.

한석윤



머리말

빠른것이 세월이다. 별로 해놓은 일 없이 문단에 등단하여 어느덧 40년 문턱을 넘어섰다. 쪽정이에 낯알이라도 있을가 하여 총화삼아 동시선집을 묶어보았다. 부끄러운대로 줄시일망정 가까운 시우들과 독자들의 평판이라도 듣고싶어서이다.

묶어놓고보니 새롭게 도약하지 않으면 남들의 뒤축에도 따라가기 바쁘다는것을 실감한다. 실오리같은 꿈썩이 동심의 언덕에서 간질거리지만 그것을 곱게 키우고 단장하는데 힘이 모자란다. 재충전하지 않으면 시인으로 영생하기 어려움을 감촉한다.

동시쓰기가 이렇게 힘든줄 일찍 알았더라면 아예 손을 대지 말고 성인시나 전공했을걸 하고 생각한적이 한두번 아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른이 동심란만한 아이로 산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다. 동심이 없이 어찌 동시가 나오겠는가. 세상에 샘물보다 더 맑지고 꽃보다 더 곱고 새싹보다 더 청순한것이 동심인데 오염된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 시줄에 담자니 잘될리가 없다. 마음의 정화와 더불어 깨끗한 동심가지기가 앞서지 않으면 동시를 쓰는 필촉도 자연히 녹슬기 마련이다.

동시의 미래를 동시단에서 한창 두각을 내미는 젊은 시인들에게 기탁하면서 약간의 동조라도 하며 계속 동시의 꽃을 함께 피우고 싶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사업에 혼신을 다 바치며 늘 일상을 바빠 보내시는 한석윤선생님께서 시간을 쪼개 동시선집에 발문을 써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보잘것 없는 동시를 너무 과찬하여 송구스럽기만 하다. 주 독자인 어린이들과 나를 관심하는 여러분의 조언과 편달을 바란다.

그리고 출판을 여러모로 힘써준 연변인민출판사 지도부에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저 자

2006년 1월 24일

차례

제1부 아기와 호박꽃



웃음샘 · 3
아기와 그림자 · 4
아기와 호박꽃 · 6
나리꽃 (1) · 7
나리꽃 (2) · 8
나팔주둥이 · 10
박꽃 · 11
이름없는 풀꽃 · 12
초롱꽃 · 14
꽃동네 · 16
봉선화 · 18
눈꽃나라 · 20
물어만 보는 아이 · 22
웃음 · 24
아기의 장남감 · 25
아기(1) · 26
아기(2) · 28
꽃가게 · 30
별꽃 · 32
버꽃 · 34

제2부 그림전시장

- 37 · 새싹은 햇병아리
- 39 · 자는것 같지만
- 41 · 봄이 오는 소리
- 42 · 제비마을
- 43 · 나비
- 44 · 아기산새발자국
- 46 · 그림전시장
- 48 · 유리창문
- 49 · 풀씨
- 50 · 꿈을 깬 애기잎
- 51 · 콩나물
- 52 · 버들개지
- 54 · 봄아이
- 56 · 뿌리는
- 58 · 아지랑이와 버들개지
- 59 · 부식토
- 60 · 잠자는 나무
- 62 · 봄나들이
- 64 · 수탉
- 66 · 빨강게 노랑게



제3부 초생달 보름달

금마차 은마차 · 69

은하수 · 70

초생달 보름달 · 71

아침해 · 72

별은 · 74

달은 · 76

하늘 · 78

해살 · 80

해는 하나뿐이 아니야 · 82

물항아리 · 84

백두산천지 · 85

산과 들 하늘을 푸르게 · 87

해는 어디서 뜨니? · 89

저 산너머 · 91

산은(1) ·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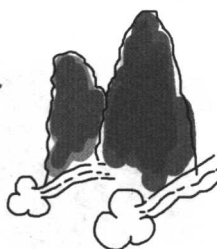
산은(2) · 94

아기와 초생달 · 96

장난감학교 · 97

달빛 타고 · 98

반달과 둥근달 · 100



제4부 양떼와 흰구름

- 103 · 새털구름
- 104 · 양떼와 흰구름
- 105 · 하늘과 구름
- 106 · 구름기차
- 107 · 산들바람
- 109 · 바람은 재간둥이
- 110 · 밤이슬과 별아기
- 111 · 바람
- 112 · 구름쪽배 타고서
- 114 · 봄바람
- 116 · 땅거미
- 117 · 무지개
- 118 · 하얀 나라
- 120 · 이슬
- 122 · 바람은
- 124 · 구름
- 127 · 저녁노을
- 128 · 별들은 꽃잎에
- 129 · 고추
- 130 · 오토기



제5부 나는 되고파라

- 물수제비 · 133
반디불놀이 · 134
나는 되고파라 · 136
시계 · 138
해별에 온몸을 태우면 · 139
사다리 · 141
선생님의 사랑은 · 142
하하하동산 · 144
연 · 146
물장구 · 148
시골학교 · 149
별나라 · 150
마라손경주 · 152
나와 그림자 · 153
꽃양산 · 154
동그라미생일 · 155
도시의 아침은 · 156
분계선의 소나무 · 158
5월의 언덕 6월의 거리 · 159
가자 산으로 들로 · 163



1 · 머리말

166 · 최문섭과 그의 동심세계

한석운



제1부 아이와 호박꽃



웃음샘

꼭 패인 앵두볼
아기의 볼우물은
웃음샘

펴내고 펴내도
언제나 찰랑찰랑
마를줄 모르는 웃음

엄마는 뽀뽀뽀
아기웃음 마시고
매일 웃으며 산다

1993. 6



아기와 그림자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 타면
그림자도 아장아장
걸음마 탑니다

아기가 일어서면
그림자도 일어서고
아기가 넘어지면
그림자도 넘어집니다

아기는 코방아 찢고
잉잉 울지만
그림자는 옹하게도
울지를 않습니다

1991. 12